

Gary Yates 박사, Jeremiah, 강의 10, Jeremiah 3, 회개 의 부름, Shub

© 2024 Gary Yates 및 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예레미야서에 관한 강의를 듣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0, 예레미야서 3.1-4.4, 회개로의 부르심, 슈브입니다.

오늘 세션의 제목은 이 책의 다음 단원인 예레미야서 3.1~4.4에 나오는 귀환의 부르심입니다.

이전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대리자로 삼으신 공판 연설과 변론 연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법정으로 데려와 그들의 죄를 확신시킵니다.

그래서 2장 끝에 이르면 유다의 간음죄에 대한 판결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불충실했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중대한 범죄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남은 것은 문장을 발음하는 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회기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종종 이러한 법정 장면 이후에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기꺼이 사람들을 그분의 방으로 다시 데려가시고 그들과 협상하여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허락하십니다. 자기 길을 바꾸어 심판을 면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사야 1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반항적인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키우셨습니다. 그들은 죽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함께 추리하자. 그리고 당신은 죄가 있지만 당신의 범죄로 인한 피로 물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당신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미가서의 법정 장면에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이스라엘에게는 회개하고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경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예언 장르 중 하나는 심판의 말씀뿐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장과 4장의 앞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특정 장르에서 일어나는 일은 선지자가 그들에게 그들의 방식을 바꾸도록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변화에 대한 호소가 포함될 것이지만, 그 변화가 왜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 제공되는 동기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동기가 긍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방식을 바꾸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일을 한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바꾸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실 형벌과 결과는 이러합니다.

선지자들의 설교의 목적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분은 단순히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시면 그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들의 모든 설교 이면에는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바꾸도록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가 다음 단원입니다. 회개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것의 문학적 형식을 명명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잠시 시간을 내어 그 구절을 살펴보고 또 다른 선지자인 선지자 아모스가 회개를 촉구하는 점에 주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의 선구자였으며 19세기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위기. 아모스 5장 4절과 5절,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른 여러 구절에서 우리는 회개하라는 분명한 요청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나를 찾으면 살리라 그러나 뱀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건너가지 말라 길갈은 정녕 사로잡혀 가고 뱀엘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찾으면 살리라 하시니라 뱀엘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와 같은 성소를 찾지 말라 너희는 그리로 가서 너희의 의식을 행할 뿐이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와 긍정적인 동기를 찾으면 당신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맨 처음에 백성들에게 운명을 주었을 때, 삶과 죽음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는 똑같은 선택을 백성들 앞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는 또 다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구하고 살리라. 긍정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세요. 이제 경고하는 바가 있으니 그가 불 같이 요셉의 집에 일어나서 뱀엘을 위하여 삼킬 자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당신은 주님을 찾아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불처럼 일어나서 사람들을 멸하실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긍정적인 동기와 부정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며 또 너희 삶의 동기를 구하고 또 그 악속을 더하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계시도록 하라.

15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너희 길 과 불의한 행위를 바꾸라. 혹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하노라.

선지자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하시고 뜻을 바꾸시어 우리가 살게 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말합니다. 21-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짐승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의 소음과 수금 선율을 내게서 그치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의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반대하는 것은 생활

방식이 없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위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외부적인 일을 없애고 정의가 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회개하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헛된 예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일을 행하라.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사야서의 그 구절을 다시 보면, 이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만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바꾸면 주님께서서는 핏자국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용서할 것이라는 보장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태도를 바꾸면, 나는 당신을 은혜롭게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고 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먹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부르다입니다.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최악의 길을 그치지 아니하면 너희가 칼에 멸망되리라. 그리고 소비된다는 단어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놓인 선택은 먹을 수도, 먹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땅의 복을 먹고 누리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칼에 먹혀 멸망할 것이요

그러므로 회개를 촉구하면 항상 변화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긍정적인 동기와 부정적인 동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판결을 내리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주님은 그의 백성을 끊임없이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것은 신비한 이름이다. 그것은

항상 누가 먼저 시작하는지, Abbot과 Costello가 함께하는 오래된 코미디 루틴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대답을 주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비의 일부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심으로써 그 이름의 의미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범죄한 것을 여호와께서 사하실 때에 이르시되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헤세드가 크며 언약의 성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이는 구약 전체에 걸쳐 주님에 대한 고백적인 진술이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특징 중 하나예요. 그는 동정심이 많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분은 화내기를 더디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로 그는 긴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코가 붉어지고 화를 내며 심판에 응답하실 곳에서 불타오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우리는 그것을 구약성서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도달할 무렵에는 수백 년 동안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의 백성에게 형벌을 선고하신다면 그것은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사실은 그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기본적으로 기한을 주시고, 이것이 다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예레미야 이전 세기인 8세기에 선지자 미가는 미가 3장 9절부터 12절에서 “시온은 밭처럼 갈아질 것이며 성전산은 폐허더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심판의 직설적인 진술이다. 당신이 그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 적절하게 응답했고, 주님은 그 판결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기 반세기 전에 선지자 므낫세가 행하였거나 므낫세 왕이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인 그의 사악한 통치를 행하였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한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접시처럼 닦아내겠다.

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이미 적어도 두 번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판단하겠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세기 후반 유다 국가의 마지막 날인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몇 년 전 한 정치인이 특정 시기에 어떤 일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유연한 마감일이나 이동 가능한 마감일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는 기원전 701년에 그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좋아, 난 이제 끝났어." 예루살렘은 폐허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백성은 이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굽히사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역대 최악의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피흘림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난 끝났어.

나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요시야가 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경건한 마지막 왕 요시아와 그 이후의 네 왕은 모든 면에서 경건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존 골든게이트(John Goldengate)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여러 번 비교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사랑과 자비의. 하지만 그는 여러 면에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은 용서하는 할아버지이신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신약의 하나님, 주님께서 과거의 무지했던 시대를 간과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양면은 옛 것과 새 것 모두에 반영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종종 놓치고 이해하지 못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한 면입니다.

그러므로 2장의 기소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유다가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작업하면서 다루게 될 문제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문제는 3장 1절과 3절에서 제기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여러 번 사용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실 아마도 이 책에서 핵심적인 신학용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이 책에서 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키거나 회개한다는 뜻의 슈브(shub) 라는 단어입니다.

자,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는 돌아서다라는 뜻이고, 그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는 구약에서 긍정적인 방식과 부정적인 방식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슈브의 아이디어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슈브(shuv)가 회개하다, 자신의 길을 바꾸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 특정 장에서 이러한 모든 방식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 여기 내 숫자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루트 슈브는 이 한 섹션에서 17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반복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조차도 여기서 슈브(shub)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칠 만큼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인 3장 1절에서 복귀 가능성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첫 구절에 대해 잠시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고 그녀가 그에게서 멀어진다면, 여기 결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와 이혼하시고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면 그 남편인 그 사람이 그에게로 돌아오겠느냐? 그리고 shub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면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결혼 하고 첫 아내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땅이 심하게 오염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많은 연인들과 창녀 역할을 했습니다.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좋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구약의 이혼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지자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서서 그들과 관계를 맺은 후에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에, 유다와 하나님 사이에 슈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여기서의 시작 구절에서는 이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가 내게로 돌아오겠느냐?”라고 말할 때, 실제로 여기에서 기대되는 대답은 “네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질문을 거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예상되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대답은 예레미야가 여기에서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이혼법을 암시하는 방식을 이해할 때 더욱 분명해 집니다.

오경과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이혼에 관한 핵심 구절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해서, 이 구절을 읽는 데만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데려다가 그에게 부끄러운 일을 발견하고 그 눈에 기뻐하지 아니하면 결혼할 때에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 그 여자가 나갈 때에 만일 그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후부가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를 데리고 간 후부가 죽었으면 그의 아내가 되면 그 전 남편 곧 그를 내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못할지니 그 여자가 부정하게 된 후에는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임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시는 땅으로 죄를 가져오게 하지 말지니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의 이혼법에는 남자와 여자가 이혼한 경우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면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가 그녀에게서 음란한 점을 발견하면 이혼이 허용되었으며, 아마도 도덕적으로 불쾌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일부 랍비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녀가 토스트를 태운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 남자가 그 이혼 증서를 주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다시는 첫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승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혼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함께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가 시도한 것은 이혼 관행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데, 여기 남자가 그런 일을 할 특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신중하게 숙고한 후에만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내를 야구 카드처럼 거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증명서를 주어야 하고, 이 여자를 내보내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다시는 다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때 특히 이 이혼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따르면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제 이 이혼법이 예레미야서 2장과 3절 뒤에 반영되어 있다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하겠습니다. 이혼법에서는 남자가 아내에게서 음란한 점을 발견하면 히브리어로 마차(matzah)라고 했습니다. 2장 5절로 돌아가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였느냐? Matzah.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혼하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습니까? 3장 6절부터 10절까지에서 주님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그분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이혼 증서와 서장을 주었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신명기 24장의 과정을 친히 따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혼 문제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을 이류 시민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혼법에서 첫 번째 남편이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슈브(shub) 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그녀를 데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동사 shub 및 lakak, 이것이 여기서 제기되는 단어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24장의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을 경우 첫 아내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절 끝 부분에 나오는 “이제 나에게 돌아오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은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NICOT에서 John Thompson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다른 신들과 결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실제로 신명기 24장을 둘러볼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그건 정말 요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예레미야 3장에서 상상한 상황이 신명기 24장에서 볼 수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단순히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신에 불신에 불신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과 같은 의로운 남편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은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또 다른 연결점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에서는 남자가 결혼한 후 첫 번째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돌아왔다면 그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그것은 땅을 부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Tameh.

그리고 2장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땅을 더럽혔는지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Tameh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 보면 그 땅이 심히 오염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리고 그 어근에는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인 하나프(Hanaf)가 있지만 여기서도 기본 개념은 동일합니다.

이혼한 후에 여자가 남편에게 불성실했을 때, 남편이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땅을 오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따라서 예레미야가 여기에서 전개하는 신명기 24장에 대한 언급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할 것을 기대합니다. 나는 이 관계가 회복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2장에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성실합니다. 그들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은 오경에 비추어 사형을 명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오경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어쨌든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 장으로 나아가면서 2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맨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대가 길가에 앉아 아랍인처럼 연인을 기다리며 황홀해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황야? 하나프여, 너는 음행으로 이 땅을 더럽혔느니라 .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일어날 것이라고 신명기 24장에서 경고한 모든 것을 더럽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님은 심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나기가 그쳐지고 봄비도 내리지 아니하였거늘 너희의 이마는 창녀 같으니라. 당신은 부끄러움을 거부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내 젊은 시절의 친구이시라고 방금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영원히 화를 낼 것인가? 그는 끝까지 분개할까요? 보라, 네가 말하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태도나 유다의 태도를 볼 때에도 귀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죄와 간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단단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반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3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과거 이력은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역사도 그것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3장 6절부터 11절까지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어진 메시지에서 슈브(shub)라는 단어가 매우 두드러집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읽어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그가 행한 일을 보았느냐 그 믿음 없는 자, 이스라엘, 그리고 슈브(shub)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뜻의 슈브(shub)라는 단어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주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북왕국을 묘사하시는 방식은 그녀가 돌아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서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행한 일은 좌회전하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그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한 요나와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셨나요? 그녀는 어떻게 모든 높은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창녀를 하였습니까? 바로 북왕국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이 일을 하고 나면 그녀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패역한 자매 유다도 그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외면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슈브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배신하는 민족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벌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 그를 벌하였노니 이로 말미암아 내 백성 유다, 내 다른 아내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오직 의로 반응할 것이라 나는 믿노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 최근의 역사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8절에서 말합니다. 그 여자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모든 간음 때문에 내가 그를 이혼 명령을 주어 내어보냈음을 보았습니다. 유다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외면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패역한 자매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도 가서 행음하였느니라. 그녀는 자신의 음행을 가볍게 여기므로 돌과 나무로 음행하여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신자 여동생은 움츠러들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역사에서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매의 일을 보고도 계속해서 죄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북왕국만큼 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승인받은 성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지도력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수사법은 당신들이 이스라엘의 모범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그들은 온갖 종류의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역사 전반에 걸쳐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현 역사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외면한 예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와, 신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11절에 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요청이 반복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3장의 시작 부분에서 신명기 24장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자신이 아내를 다시 데려갈 수 있다고 친히 정하신 것은 율법에 근거하여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에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이혼법을 제쳐두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의 정도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못한 현재의 역사를 볼 때, 주님께서서는 아직도 자기 백성에게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감일이 다시 연기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 후반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돌아올 수 없는 이 모든 이유들 이후에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부르짖음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이 배반한 유다보다 의로움이 더 컸느니라

너는 가서 북쪽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배역한 이스라엘은 돌아오라 나는 자비한 까닭이라 너희의 진노를 참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나에게 돌아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사역 초기 요시야 시대에 북쪽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주님께서서는 앗수르의 위기에서 포로들을 부르셔서 주님께로 돌아가 유다와 연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 시대에는 민족통일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요시야와 연합하여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는 역사적 방식으로 그 특정 상황에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경 성경 본문의 일부로서,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반복적인 요청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예레미야의 사역 초기에 북왕국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들에게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아, 나에게 돌아오너라. 1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은총을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방인에게 분산시키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네 죄악을 인정하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당신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말할 때 2장에서 했던 것처럼 말하는 대신,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바알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백 해. 내가 무슨 짓을 한? 당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14절, 두 번째 부르심.

오, 믿음 없는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거기에 쇼라는 단어의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오, 외면하는 자녀들아,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는 너희 주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한 성읍에서 한 사람, 한 가족 중에서 두 사람을 택하고 시온으로 인도하리라. 다시 말하지만, 요시아 시대에 구상했던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포로기 이후에도, 심지어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 유다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에도 주님의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해당 메시지가 계속해서 다시 적용됩니다.

나에게 돌아와. 주님은 당신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원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할 이유를 주실 때마다 항상 긍정적인 호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너희에게 지식과 총명을 주어 먹이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하고 번성하면 사람들이 다시는 여호와와 언약궤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것은 나에게 오지도, 기억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때에 예루살렘은 여호와와 보좌라 일컬음을 받고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앞으로 모일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악한 마음을 완고하게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그분께로 돌아오면 그 수준의 회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구원의 역사는 훨씬 더 짧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그들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역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특정 구절에서 어근 슈브(shub)가 세 가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돌아가라, 슈브여, 오 믿음 없는 자들아. 외면하는 아들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외면을 고치리라.

그래서 주님은 네가 외면하는 것이 문제인 줄 알지만 만일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심장 수술하여 네가 나를 외면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서 행하실 일입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 법을 기록하리라.

외면의 역사는 역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호소는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도 동사 shub가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느니라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너희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 우상을 버려야 하리라. 그것은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으며, 다른 모든 신들도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이 계실 것입니다.

또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면 열방이 저로 말미암아 스스로 축복하고 저로 자랑하리로다. 이제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전환에 무엇이 달려 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변화는 이스라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땅에서 경험할 축복을 위해서도 중요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스스로를 축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중재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에서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이 중재해야 할 다른 민족들에게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만국이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을 한다면 아브라함 언약의 계획은 마침내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초반부에서도 마지막 왕국에서 궁극적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의 3장과 4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 그러한 축복을 중재하는 데 사용되는 이스라엘의 도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섹션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몇 가지 매우 효과적인 이미지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그 형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떨기에 파종하지 말라. 인간 마음의 단단한 흙을 깨뜨리고 땅을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당신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온갖 종류의 흙이 있습니다. 씨앗을 받아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흙은 한 종류뿐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가 하는 일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가시떨기, 즉 숨 막히는 세상의 염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농업 사회의 사람들에 대해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주께 할례하여 마음 껍질을 벗기라 하십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의 악한 행위로 인해 내 진노가 불처럼 타서 꺼지지 않을 사람이 없게 하여라. 여기에 있는 것은 회개에 대한 마지막 요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긍정적인 약속 대신 아모스서에서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너희 길을 바꾸지 말며 묵은 땅을 갈지 아니하며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터지리라.

할례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표였습니다. 포피를 자르는 것은 그것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이곳과 신명기에 사용되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잘라내고, 심장 수술을 하고, 결국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2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한 작가는 제한된 매춘부의 이미지라고 불렀습니다. 2장에는 남편에게서 등을 돌린 불성실한 창녀가 등장합니다.

4장에서는 언약의 일원인 할례받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축복을 누린다. 과거에는 융통성 없는 기한이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면서 이것이 이 책의 줄거리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내와 내가 앉아서 영화를 볼 때나 텔레비전 쇼를 보기 위해 앉아 있을 때, 그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일반적으로 그 영화에는 별로 줄거리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즐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 비추어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역인 예레미야가 궁극적으로 인간 관점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의 나머지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이것을 더 발전시킬 것이지만, 우리를 위해 이것을 설정하는 몇 가지 구절만 있으면 됩니다. 8장 4절과 5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좋아, 당연하지, 넘어지고 넘어지고 일어나면 돼.

외면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행기 여행을 가면 일반적으로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외면하고 타락했습니까? 그들은 거짚을 굳게 잡고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기본적으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 백성은 유죄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다.

그들은 왕국의 축복과 평안과 안전과 변화된 마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할 수도 있고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8장 4절과 5절에는 이미 백성들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4장에서는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여 경고하여 듣게 하리요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멀시거리가 되느니라.

아시다시피, 저는 예레미야서 2장, 3장, 4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불충실한 신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행한 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와 같습니다. 그는 기꺼이 고머를 찾아서 그녀를 다시 데려오고 그녀를 속박에서 사서 그녀를 사랑하고 회복시켜 영구적인 사랑의 관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시하며, 그 경고를 경멸하는 마음으로 봅니다. 예레미야서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거부한 결과와 그 결과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파괴적일 것입니다.

39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모린 오코너는 이 책을 연구하면서 예레미야서 1장부터 25장까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인 돌아오라는 부르심이 2장부터 10장까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3장과 4장의 초반 부분에서 shub 라는 단어가 17번 사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오코너가 지적한 것은 예레미야서 10장에서 20장에는 돌아오라는 부르심이 세 번만 있고 구체적인 장소는 세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21장에서 25장으로 이동하면 기본적으로 반환 요청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예레미야서 자체가 무작위 메시지를 무작정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으며,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친절이 풍성하다는 고백의 말씀을 누릴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는 기꺼이 용서합니다. 그분은 천대까지 언약의 신실하심을 지키십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잃습니다.

심판을 피할 기회를 놓친 비극은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는 점이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 판단이 전혀 불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서 1장부터 25장까지에서 고발의 메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서에 관한 강의를 듣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10, 예레미야서 3.1-4.4, 회개로의 부르심, 슈브입니다.